

창립: 1991. 12. 29.

제31-52 2022. 12. 25.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2월 21일(수)
성탄축하의 밤

12월 25일(주일)
성탄예배 및 창립 31주년기념
직분자 은퇴식 감사예배

1월 1일(주일)
신년감사예배, 성찬식

1월 11일(수)
수요찬양예배

대 예수교장로회
양주

한우리교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8시 예배/최영두 11시 예배/안현수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참 반가운 성도여 (새찬122) 다 함 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 봉헌 및 8시 예배/ 민봉식 장로 11시 예배/ 임상규 장로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막 10:45 사 회 자
- 찬 양 그가 시온, 할렐루야
연합 찬양대
- 말 씬 그 풍성한 생명 2 남우택 목사
내어주심
- 찬 양 빛 되신 주 다 함 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손보영 장로 2부/ 배정석 장로 3부/ 안정신 권사

말씀: 빌 4:10-23
 제목: 기쁨이 풍성한 삶의 비결
 기도: 이상용 집사 (다음 주 기도: 김성국 집사)
 설교: 김민재 목사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2. 예배 시작전, 소지하신 휴대폰을 반드시 무음 처리하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예배(25일)는 오전 8시와 11시입니다.
4. 오늘 11시 예배에 김승권 장로 은퇴 및 원로추대와 이응상 남상수 김희경 김세환 집사 은퇴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5. 오늘 11시 예배에 세례와 입교 및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 세례: 박서현
 - 입교: 김도희 남정현 배가연 박주영 박한별 이윤규 이은준 임단아 정인영 최은찬
 - 유아세례: 이지온(이동준 김정아)
6. 다음 주일(1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준비위원회에서는 31일(토), 5시에 새가족실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 권정호 김규영 김민배 신규식 박승욱 최병한
7. 2022년도 제12기 한우리반 수료를 축하합니다. 수료자: 김성철, 김정희, 이상윤, 김보미
8. 2023년도 서리집사 임명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교회사무실 또는 온라인 서식
9. 1부 예배(8시) 경배와 찬양팀에서 키보드로 섬기실 분을 구합니다. 문의 김민재 목사 020 4011 7176
10. 3부 예배(12시) 경배와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실 분을 구합니다. 자격: 한우리반 수료 문의 김규영 집사 022 029 9838

교육부서 및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 1월 22일(주일) 오후1:30
- 교회학교 패밀리 서비스 (12.25. - 1.22.) 기쁨, 꿈, 약속의 나라 자녀들은 비전홀과 조이홀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 교회학교 졸업연합예배:
 - 일시: 1월 29일(주일) 오전 10시30분 바울홀 (꿈, 약속, 비전의 나라 주니어 & 시니어)
- 약속의 나라: 2023 어린이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및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김은주 책임교사 021 321 457

재정부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온라인 헌금 code 는
12 Xmas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부

이번주일 거리전도는 브라운스베이 비치 근처에서 3시에 시작합니다. 성탄축하 찬양과 전도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초대하며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목장 & 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2	18	2부 경찬팀
1	22	할렐루야 찬양대
	29	시온 찬양대

교우동경

- 출생
김진영 목사 윤희인 사모 가정이 지난 23일 득녀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리교회주보

그 풍성한 생명 2
내어주심 (막 10:45)

2022.12.25.
설교: 남우택 목사

1. 지난주 설교 가운데 가장 도전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서로 나누어 보자.
2. 말씀을 통해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나누어 보자.
3.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에 대해 목장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정리하고 기도하자.

<p>예멘</p>	<p>“가난한 자가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라” 내전으로 인한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 유니세프 최근 발표</p>
<p>2015년 이후 예멘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1만 1천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은 사망자의 숫자는 유엔에 보고된 사망자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집행국장은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면서 “후전의 재개는 중요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하는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다시 휴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러셀은 “수천 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기아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다. 유니세프는 예멘에서 5세 이하 어린이 54만 명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1,780만 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안전한 물, 위생, 위생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예멘 보건 시설의 절반만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약 1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출처: 로이터통신)</p>	
<p>북한</p>	<p>“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여호와의 보호를 받으리라” 심각한 경제난 속…혹한까지 생존 위협받는 북한 주민들</p>
<p>북한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주민들은 겨울나기 준비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난 속에 방한용품과 난방 자재를 구하지 못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주민들이 많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2일까지 양강도 해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25.8도, 평균기온은 약 영하 13도로 관측됐다. 이렇듯 혹한이 닥쳤음에도 북한에는 제대로 된 방한복을 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고, 특히나 경제력이 좋지 않은 지방 주민들이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다.</p> <p>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들어 양강도 해산,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청진·길주 등 각 도(道)의 주요 도시들마다 기차역과 시장 주변을 떠돌며 구걸하는 꽃제비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올해는 유독 노인 꽃제비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먹을 것도 기거할 곳도 없는 노인들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데, 단속하는 상무들이 나와도 힘이 없어 도망도 못 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출처: 데일리NK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멘] 내전으로 생활 기반이 붕괴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예멘 주민과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수많은 이의 생명을 빼앗는 분쟁이 속히 그쳐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 [북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북한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사 겨울을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시고,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사로잡힘을 면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사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소서. <p style="text-align: right;">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